

北韓의 歷史學

李 光 麟

I. 序 論

III, 北韓의 歷史學者

II. 北韓의 研究機關과 그 成果

IV. 結 語

I. 序 論

1945년 8월 해방 이후 北韓의 歷史學界에서는 어떤 문제를 많이 研究하고 또 어떤 成果를 거두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學界에서는 資料를 구할 수 없음으로 해서 別般 知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단지 제 3국 즉, 日本의 學술 잡지에 소개된 것이나, 日語로 번역된 것을 土臺로 하여 若干의 動向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하와이대학의 崔永浩교수가 英文으로 쓴 다음과 같은 두 편의 論文은 우리들에게 많은 知識을 提供해 주고 있다.

○History in North Korea: Its Role and Characteristics, 『東西研究』 5卷 1號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研究所, 1976.4.)

○Reinterpreting Traditional History in North Korea,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L, No. 3, May 1981.

최교수는 미국의 여러 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北韓資料를 널리 섭렵하고 北韓 歷史學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다. 즉, 前者에서는 北韓의 歷史學이 철저히 맑스·레닌主義에 立脚하여 연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主體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論하였다. 後者에서는 主로 奴隸制와 資本主義 關係의 發生 등의 문제를 갖고 한국 歷史에 대한 時代區分 문제를 다

* 本 研究는 1988年度 文教部 共產圖研究支援金を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루고 있다.

今般筆者도 北韓의 歷史學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역시 資料의 不足함을免치 못하고, 또 歷史學 全般을 다룰 能力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北韓의 代表的인 歷史學者 金錫亨과 朴時亨 두 사람을 中心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두 사람은 모두 南韓出身의 學者로 1946년에 越北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北韓의 歷史學界를 主導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本稿에서는 可能한 限 그들의 經歷과 研究 업적을 살펴 北韓의 歷史學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本稿를 作成함에 있어서 筆者는 미국의 많은 研究 기관과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하바드 ENCH 도서관과 이 도서관의 韓國部 責任者 金성하氏의 獻身的인 協助가 컸었다. 이 자리를 빌어 謝意를 表하고자 한다.

Ⅱ. 北韓의 研究機關과 그 成果

本論에 들어가기 앞서 北韓에서의 歷史研究 機關과 그 成果 등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성 싶다.

共產政權이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0월 2일 北韓의 內閣 第4次會議에서는 教育相에게 朝鮮歷史 編纂委員會를 選任함과 동시에 1949년 3월末까지 最近世史를, 同年 12월末까지 通史를 刊行토록 하라는 決定을 내렸다.¹⁾ 이 決定에 依據하여 教育相은 49년 1월 13일 編纂委員會를 다음과 같이 選任하였다.

委員長 *白南雲

委員 洪命燾, *崔昌益, *太成殊, *南日, *金承化, 奇石福, *朴永彬, *朴東礎,

1) 『歷史諸問題』 5輯(1949년 刊) 所收 內閣決定 제11호 「朝鮮歷史編纂委員會에 關한 決定書」.

*金斗鎔, *柳文華, *金洸鎭, 韓雪野, 李箕永, 田蒙秀, 張周益, 黃炳仁,
*朴時亨, *金錫亨, 金得中, 金慶寅, *韓吉彥, 李東華, 金漢周, 李如星,
韓興洙, 都有浩, 鄭賢奎, 朴庚守 (*은 常任委員).

分科委員會

1. 原始史分科委員會 韓興洙·南日·都有浩·李如星·黃漢.
2. 古代史分科委員會 韓吉彥·崔泳煥·田蒙洙·黃炳仁·金承化.
3. 封建史分科委員會 金錫亨·朴永彬·張周益·金得中.
4. 最近世史分科委員會 金承化·洪命熹·崔昌益·朴時亨·奇石福·金洸鎭·金斗鎔·朴東礎·金庚寅·柳文華·朴庚守·李東華.

아울러 같은 날 內閣首相이 編纂委員會에 基本課業을 下達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았다.²⁾

1. 朝鮮歷史를 編纂하는 原則의 理論의 基準을 科學의 世界觀에 根據할 것.
2. 朝鮮歷史編纂의 基本方針에 있어서는 日本式 史學 및 그 影響의 殘滓를 一掃하는 同時에 西歐學者들의 東洋史에 關한 부르조아의 見解와 偏見의인 方法의 影響을 絶對로 排除할 것.
3. 編纂의 對象은 原始民族社會로부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이르기까지의 朝鮮歷史發展의 全課程이며, 編纂의 基本內容은 社會의 生産機構 及 性格의 生成發展 및 轉變關係를 科學의으로 究明할 것.
4. 編纂의 當面課業으로서는 政治의 現實의 要請에 따라 最近世史를 一九四九年 三月末까지, 概括的인 簡易通史를 同年 十二月末까지 公刊할 것.
5. 史料의 蒐集調査는 繼續事業으로써 國內外에 걸쳐 實施할 것.
6. 朝鮮歷史에 關한 個別의 問題의 研究發表討論을 爲하여 機關紙『歷史諸問題』를 出版할 것이며, 그에 掲載될 原稿의 審査는 常任委員會에서 할 것.

위의 內容을 살펴 보면, 우선 編纂委員 중에서 委員長 白南雲은 教育相이었던 까닭으로 當然職으로 選任되었고, 나머지 委員들은 당시의 北韓政治勢力을 참조하여 構成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崔昌益은 延安에서 온 朝鮮獨立同盟 出身이었고, 太成洙, 南日, 金承化, 奇石福, 朴永彬 등은 소련 出身이었다. 다시 말하면, 해방 뒤 소련軍이 進駐할 때 北韓에

2) 同上書 所收「朝鮮歷史編纂委員會의 組織 및 基本課業에 關하여」.

들어와 勞動黨, 言論기관, 學校 등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³⁾

그 밖의 사람들 즉, 洪命熹 등은 國內派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作家, 歷史學者, 考古學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金錫亨과 朴時亨이 常任委員으로 選任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日帝時代 歷史學者로 訓練을 받았고, 또 이미 업적을 낸 바 있었기 때문에 選任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들이 編纂委員會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음으로 基本課業 중에서 밝힌 通史와 最近世史의 刊行은 뜻대로 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비록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歷史를 敘述한다 해도 해결 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았고, 또 研究蓄積이 적었던 것이므로 쉽게 이를 수 없었다. 혹, 1949년 11월에 金日成綜合大學에서 刊行한 『朝鮮民族解放鬭爭史』가 最近世史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朝鮮民族解放鬭爭史』의 內容은 學問的으로 볼 때 水準이 매우 낮은 것이었다. 총 438面 중에서 상당한 分量을 白南雲이 썼고, 朴時亨도 大院君時代의 對內外政策을 「歐米資本主義侵入과 國內動向」이란 제목으로 썼으며, 經濟史家 金洸鎮도 「露日戰爭과 乙巳五條約」을 쓰고 있다. 最近世史를 전공하는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內容구성 또한 엉성한데다가 새로운 內容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책을 最近世史와 관련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국, 最近世史의 刊行은 쉽게 이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이와는 달리 『歷史諸問題』란 잡지는 계획대로 刊行을 하였다. 1948년에 4輯, 49년에 10輯, 50년 5월까지 4輯을 刊行하였다. 그러니까 動亂이 일어나기 전까지 총 18輯을 刊行한 셈이 된다. 그러나 좋은 論文이 게재되어 있지 못하다. 해방 전에 공부하였던 것을 주로 실었던 것 같고, 또 啓蒙的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 단지 各號에 「外國史潮」라 하여, 소련

3) Dae-sook Suh (徐大肅), *Soviet Koreans and North Korea: Koreans in the Soviet Union*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1987).

의 學界를 소개하고 있는 것과 소련 학자의 論文을 번역하여 실은 것이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제 2호에 「베·데·그레코브」의 「레닌과 歷史科學」, 「아·브·미슈린」의 「레닌·스탈린에 依한 歷史科學의 發展」, 「므·아·레오노브」의 「辨證法的 數個問題에 關하여」 등과 같은 것들이다. 물론 이와 같은 論文들도 唯物史觀을 해설하는 데 그쳤고 水準이 낮은 것들이다.

그런데 北韓에서 歷史學을 本格的으로 研究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動亂 중인 1952년 10월 科學院이 설립되면서 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기관의 初代 院長에는 白南雲이 任命되었다. 산하에 考古學, 民俗學, 經濟學 등의 研究所와 아울러 歷史研究所가 설치됨으로써 多數의 歷史學者들이 研究員으로 任命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科學院이 설립된 지 11년이 경과된 1964년 2월 17일 內閣 決定 제11호로 社會科學院으로 改稱되었다. 社會科學 관계 研究기관의 紐帶를 強化하기 위한 措置에서였다. 산하에 考古學, 經濟, 歷史, 言語, 法學, 哲學, 主體思想, 文學, 古典 研究所가 설치되었다.⁴⁾ 社會科學 뿐만 아니라 人文科學에 屬하는 研究所도 社會科學院에 豫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歷史研究所에서는 1955년 1월부터 『력사과학』(歷史科學)이란 학술잡지를 刊行하였다. 첫 해에 12호를 刊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달 한 호씩을 刊行한 셈이 된다. 그러나 다음 해 즉, 1956년부터는 2개월에 한 호씩, 따라서 1년에 6호를 刊行하였고,⁵⁾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68년부터 76까지는 定期的으로 刊行되지 못하였다. 그 동안에 6호밖에 刊行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⁶⁾

77년에 속간되어 1년에 4호씩을 내고 있고, 오늘날 즉, 88년까지 계속

4) 『北韓總覽』(北韓研究所, 서울, 1983년 4월 刊) 참조.

5) 『朝鮮研究』 45호 (日本 朝鮮研究所, 東京, 1965년 11·12월 刊).

6) 『력사과학』 1967년 6호가 累計 74호로 되어 있고, 77년 1호가 81호로 되어 있다. 따라서 68년에서 76년까지, 75호에서 80호까지 6호가 刊行되었

되고 있다. 그렇지만 77년부터 刊行되는 잡지는 55년에서 67년까지 13년 동안 刊行되었던 것과는 質的인 差異가 있다. 그것은 학술잡지라기 보다 一種의 선전 冊子라고 할 수 있다. 좋은 論文도 실려 있지 않고, 主體思想, 혹은 金日成 崇拜思想이 담긴 記事로 가득차 있다. 그러니까 歷史研究所도 68년부터 北韓社會에서 일어난 思想鬭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思想鬭爭이란 맑스·레닌主義에서 主體思想으로 轉換시킴과 同時에 金日成, 金正日의 權力繼承을 承認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落着되지 못한 처지에서 歷史研究所에 所屬되어 있는 학자들이 잡지를 刊行할 수 없었고, 또 그 문제가 落着된 뒤에도 從來와는 다른 역사를 강조해야 되는 처지에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에서 歷史學이 가장 활발히 研究되고, 또 그 나뉠대로 훌륭한 成果를 거두었던 시기는 55년부터 67년까지 13년이 아닌가 한다. 사실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史 研究도 1960년대 北韓의 歷史學 研究에 큰 영향을 받은 바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⁷⁾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歷史研究所에서도 1965년 1월 『력사과학』 創刊 10週年을 맞이하여 自體內에서 이룩한 成果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자랑하고 있다.

오늘 우리 력사 학계는 학술 및 이론 잡지 《력사과학》 창간 10주년을 뜻 깊게 맞이한다. 《력사과학》은 1955년 1월에 자기의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았다.……(中略) 《력사과학》은 당이 제시한 정확한 과학 정책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 력사 과학과 력사 학계의 발전을 위하여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력사과학》은 자기의 지상을 통하여 조선 력사를 맑스-레닌주의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체계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력사학에서 공백으로 되어 있었거나 거의 연구되지 못하였던 원시 사회, 고대 국가 형성에 대한

던 것 같다.

7) 井上秀雄,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史學의 現狀과 將來」, 『第1回 仁荷大學校 韓國學 國際學術討論會』(1987년 9월 10~12일) 所收.

문제, 삼국 시기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문제, 우리 나라 봉건 사회에서의 토지 소유 제도의 성격에 관한 문제, 봉건 사회 태 내에서 자본주의 발생에 대한 문제 등 우리 나라 고대, 중세 력사의 체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가일층 심화되었다. ……(下略)⁸⁾

結局, 우리나라 歷史에서 공백으로 되어 있었거나, 既往에 연구되지 못한 部分에 대한 研究를 함으로써 큰 成果를 거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떤 成果를 거두었을까? 우선 歷史科學에 多數의 論文이 발표되었고 論爭도 많았다. 그 몇 가지를 例로 든다면, 첫째로 古朝鮮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古朝鮮의 位置⁹⁾와 그 文化에 대한 研究가 있었고,¹⁰⁾ 전문가들 사이에서 열띤 論爭이 있었다.¹¹⁾ 다음으로 三國時期 社會·經濟 構成의 性格에 관하여,¹²⁾ 또 奴隸所有者社會時期에 대하여,¹³⁾ 封建時代의 土地所有關係,¹⁴⁾ 부르조아民族形成¹⁵⁾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또한 論爭이 있었다.

歷史研究所에서는 『력사과학』이란 잡지 外에 많은 單行本도 刊行하였다. 그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朝鮮通史』라 할 수 있다. 上卷은 1956년, 下卷은 58년에 刊行되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1949년 1월 內閣 首相이 朝鮮歷史編纂委員會에 下達한 基本課業 중 그 해 12월 末까지 通史를 刊行토록 하였던 것인데, 7년이 지날 뒤인 1956년에 上卷이 刊行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많은 缺點이 있음을 發見하였다. 특히 여러 사람이 分

8) 『력사과학』 1965년 1호.

9) 同上書 1963년 2호 所收「고조선 평역에 대한 학술토론회」.

10) 同上書 1961년 5호 所收 도유호, 「고조선문화에 대하여」.

11) 『고조선문제에 관한 토론회』(과학원 출판사, 1963년 4월 刊).

12)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과학원출판사, 1957년 12월 刊).

13) 『력사과학』 1960년 5호에 실려 있는「우리나라에 존재한 노예소유자 사회 시기 문제에 관한 과학토론회」.

14) 同上書 1957년 6호에 실려 있는「조선봉건시대의 토지소유관계에 관한 과학토론회」.

15) 『력사과학』 1957년 1호에 실려 있는「조선시대에서의 부르조아 민족 형성에 관한 토론회」.

擔하여 쓴 結果로 論旨의 一貫性이 缺如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다시 執筆者에 依賴하고 討論을 거쳐 1962년 改正版을 내놓게 되었다. 改正版은 上卷만이 刊行되었으나 原始社會에서 1860년대까지 걸쳐 있고, 分量도 1956년 版보다 2배가 되는 850면에 達하였다. 그리고 앞서 보다 더 많은 學者를 動員하여 敘述하고 있으면서도 見解를 統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잡지 『력사과학』에서 제시되었던 많은 意見이 本書에서 수렴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本書는 北韓의 歷史學界의 成果를 反映하고 있는 책이고, 또 歷史意識을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時代區分을 明確히 하고 있고, 全般的으로 肯定的 評價를 내리고 있는 것이 特徵의 이다.

靑銅器時代를 기원전 2천년 末期부터 1천년기 중엽으로 보고 있고, 鐵器時代를 中國文化의 影響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古代種族들 사이에서 獨自의 發生·發展한 것이며, 鐵器의 使用은 原始共同體社會를 急速히 붕괴시키고 古代國家를 形成시켰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最初의 古代國家의 하나인 古朝鮮은 기원전 5~4세기에 奴隸所有者의 國家로 확고히 存在하였다고 하였다. 渤海를 한국사에 편입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新羅와 對等한 地位에까지 올려 놓고 있고, 高麗王朝의 成立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統一政權이 수립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朝鮮後期社會에 대해 前版에서는 「農業의 荒廢와 工業·商業의 沈滯」로 설명하여 消極的 否定的으로 다루었으나, 本書에서는 「資本主義 萌芽의 發生」이라 하여 積極的,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다. 즉,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엽까지 鑛業 및 一部 手工業 部門에서 資本主義的 生産關係의 萌芽가 발생하였다고 쓰고 있다.

歷史研究所가 아닌 科學院 산하 哲學研究所에서 편찬한 『朝鮮哲學史』도 우리의 注目을 끌기에 足하다. 1960년 4월 上卷만이 刊行된 이 冊의 執筆者는 鄭鎭石·鄭聖哲·金昌元이고, 당시 科學院 哲學研究所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책의 分量은 369면에 達하고, 時代區分은 『朝鮮通史』

와 같다. 原始時代(기원전 3세기 이전)에서 資本主義社會(19세기末에서 1945년까지)에 걸쳐 있고, 封建社會(三國時代에서 19세기 70년대까지)에 重點을 두고 있다. 모든 哲學을 唯物論과 觀念論의 二大陣營으로 나누고, 그 歷史를 唯物論과 觀念論과의 鬭爭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國王, 兩班, 地主 등의 支配階級은 觀念論을, 農民 등 被支配階級은 唯物論을 堅持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나치게 單純論理로 敍述되고 있는 것이 큰 흠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 最初의 體系的인 哲學史라는 點에서 意義가 있는 책이다.

한편 歷史研究所에서는 1962년에 600면 가까운 『朝鮮文化史』를 刊行하였다. 北韓에서 활약 중인 數 10명의 학자를 動員하여 著述하고 있어 北韓의 歷史學界의 水準을 보여주는 책이다. 65년에 增補 改正版이 刊行되었는데, 所長 金錫亨 등은 그 中心 역할을 하였다.

本書는 6編으로 구성되어 있고 原始時代로부터 20세기 초 즉, 朝鮮王朝 末期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自然科學, 醫學, 哲學, 歷史, 文學, 美術, 工藝, 考古學, 音樂, 民俗學 등 文化的 全領域을 取扱하고 있다. 한국 文化를 「自主」, 「愛國」, 「創造的」精神의 產物로 보고 있고, 그것을 繼承・發展시켜야 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朝鮮通史』와 마찬가지로 中國文化와의 관련을 전혀 무시하는 등 一國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北韓學界가 얼마나 偏狹한가를 端的으로 들어내주고 있다 할 것이다.

1964년 4월 歷史研究所에서는 『金玉均』이란 이름의 책도 刊行하였다. 論文 11編과 附錄이란 이름 아래 關係 資料까지 수록하고 있고, 分量은 570면이나 된다. 솔직히 말하여, 오늘날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金玉均에 대해 愛國者나 親日派나 등으로 贊反이 엇갈려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金玉均이 우리나라 부르조아 改革運動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고 金日成이 評價를 내리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歷史研究所에서 近代史를 전공하는 學者들을 動員하여 著述하였다고 한다. 內容은 19세

기 初・中葉의 經濟狀態에서 亡命時代의 金玉均까지 取扱하고 있고, 맨 앞의 章에, 「金玉均의 生涯와 活動」이란 제목으로 金錫亨이 쓰고 있고, 「金玉均의 哲學과 政治經濟思想」이란 제목으로 科學院 哲學研究所長이었던 鄭鎭石이 쓰고 있다.

그 밖에 歷史研究所에서는 1957년부터 해마다 한 卷씩 『력사논문집』을 刊行하였다. 59년 6월에 刊行된 3집을 보면 金錫亨의 「兩班論」과 全錫淡의 「리조초기 〈14세기말~15세기말〉에 있어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와 농민들에 대한 착취 제 형태」라는 논문이 收錄되어 있다. 그리고 61년 9월에 刊行한 『우리나라 봉건 말기의 경제 형편』이란 제목의 책도 있다. 350면이나 되는 分量이 큰 책이다. 여기에는 朴時亨의 「리조 시기 수공업에 관하여」, 金錫亨의 「18~19세기 광업의 형편과 그 자본가격 경영형태에 대하여」, 洪喜裕의 「15~19세기의 우리나라 장시에 대하여」, 張國鐘의 「18~19세기 전세에 의한 착취와 이를 통하여 본 화폐 관계의 발전」 등의 論文이 收錄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1955년에서 67년까지 歷史研究所에 所屬되었던 學者들이 『력사과학』에 多數의 論文을 발표함과 동시에 單行本을 刊行하였는데, 이는 학자들이 활기에 차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 行刊한 책들은 대개 朝鮮後期 혹은 合邦前後까지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68년에서 77년까지 10년간의 思想鬭爭 뒤에 나온 책들은 日帝時代나 解放이후, 심지어 오늘날에 焦點을 두고 있다. 이는 金日成 偶像化의 作業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歷史研究所에서 기획하여 79년에서 83년 사이에 刊行한 『조선전사』는 그 좋은 예에 속한다. 『조선전사』는 총 33책이나 되는데 年表가 1책, 그리고 고대, 중세, 근대(原始時代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편이 15책, 현대편이 17책이다. 현대편은 金日成의 抗日武裝鬭爭으로부터 시작하여 解放후 北韓에 들어와 政權을 장악하고, 한국 動亂을 거쳐 오늘날의 南韓政治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현대편을 소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그것을 밝히고 있다.

『조선전사』현대편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위대한 평도자를 높이 받들고 민족해방, 제국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자랑스런 역사를 전면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항일혁명투쟁, 민주건설,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건설 시기의 역사 그리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투쟁사, 해외교포운동사, 대외관계사가 처음으로 정연하게 체계화되어 있으며 교육, 과학, 기술, 문화예술, 체육, 보건, 출판, 보도 등 여러 부문의 부문사가 풍부하게 개괄되어 있다.…… (下略)¹⁶⁾

結局, 北韓의 歷史學은 金日成 偶像化作業의 侍女로 轉落하고만 셈이다. 唯物史觀을 堅持하고 있을망정 55년에서 67년까지 그렇게도 큰 成果를 거두었던 北韓의 歷史學이 이제는 그 빛을 잃고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Ⅲ. 北韓의 歷史學者

解放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韓의 代表的인 歷史學者를 꼽으라면 누구나가 金錫亨과 朴時亨을 들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北韓의 歷史學界가 거둔 成果를 살피에 있어서 이 두 歷史學者의 經歷과 업적을 한번 더듬어 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이 두 사람은 모두 南韓 出身으로 1946년에 越北하였고, 敎育은 解放前 南韓에서 받았던 것이므로 이들에 관한 資料가 多幸히도 南韓에 若干 남아 있다. 이제 이들의 經歷과 研究成果를 살펴 보기로 하자.

1. 金錫亨

金錫亨은 1915년 11월 7일생으로 어린 시절을 大邱에서 보냈다. 그것은 父親 金宜均의 故鄉이 서울이었으나 오랫동안 大邱市에서 辯護士 開業

16) 『력사과학』 1982년 4월호에 실려 있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해온 우리 인민의 자랑스런 투쟁과 창조의 력사총서」.

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父親과 母親(李宜卿)은 모두 철저한 기독교(長老敎) 信者였다. 父親은 1913년에 洗禮를 받고 그 뒤 長老가 되었으며, 母親은 서울의 貞信女學校 出身으로 前 校長 金彌禮와 동창이었다. 그리고 1919년 金瑪利亞를 中心으로 하는 大韓民國 愛國婦人會 事件에 關連되어 獄苦를 치루기도 했다.¹⁷⁾ 金宜均은 많은 獨立運動 關聯者를 法廷에서 변호함으로서 名聲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敎會에서 설립한 喜道學校의 校長으로 奉職하여 敎育界에 큰 功을 남겼다. 그가 校長으로 在職한 시기는 1917년 7월에서 45년 8월까지 30년 가까이 되었다.¹⁸⁾

解放 후 美軍政이 실시되면서 道諮問會의 추천에 依해 慶尙北道 知事로 任命되어 45년 12월 23일에서 46년 12월 4일까지 滿 1년간 道政을 맡았다.¹⁹⁾ 慶北地方에서 최초의 民選知事라 할 수 있었다. 그만큼 그는 그 地方 사람들로부터 人望이 컸었다.

金錫亨은 父親이 校長으로 있던 喜道普通學校(1955년 3월 이 학교는 公立學校로 바뀌어 鍾路國民學校로 改稱되었다.)에서 修學한 뒤 大邱公立 高等普通學校(오늘의 慶北高等學校)에 進學, 1933년 3월 졸업하였다. 1년 뒤 34년 4월 京城帝國大學 豫科에 入學, 37년 4월 同校 法文學部 史學科로 進學하였고, 1940년 3월 졸업함과 同時에 서울의 養正中學校의 敎員으로 就職하였다. 그러나 45년 3월 日警에 依해 威鏡南道 高原警察署에 被檢, 6월에 威興刑務所로 移監되었고, 8월 해방과 더불어 석방되었다. 그가 구속되었던 것은 朝鮮語學會事件과 관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곧 養正中學校 敎員으로 復職하였으나 7개월 뒤 辭職하였다. 그것은 46년 3월 京城師範大學(오늘의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敎授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朝鮮共產黨의 命令으로 그 해 8월 越北하여 金日成綜合大學 敎授가 되었다. 그는 45년 10월 革命家였던 徐重錫을 保證

17) 『대구제일교회 90년사』(대구제일교회, 1983년)와 『貞信 100년史』(原稿) 참조.

18) 同上書.

19) 『慶尙北道史』中卷(慶尙北道史編纂委員會, 1983) p. 790.

人으로 하여 共產黨에 加入하였다.²⁰⁾ 그리하여 黨의 命令이 내려지자 越北해야만 하였다. 日帝時代 서울의 普成專門學校 經濟學 教授였던 金洸鎭이 해방 당시 고향인 平壤에 있었고, 재빨리 共產黨에 加入한 뒤 46년 7월에 越南하여 數 10名의 학자들과 접촉·실득함으로써 그 一部가 越北하였다고 하는데,²¹⁾ 金錫亨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父親 金宜均이 慶尙北道 知事로 在職하고 있을 때 越北한 셈이었다.

金錫亨이 日帝時代に 쓴 글로 筆者가 조사한 바로는 『震檀學報』 14號(1941년 6월刊)에 실린 「李朝初期 國役編成의 基抵」와 『春秋』 4호(1941년 5월刊)에 실린 「朴燕巖과 熱河日記」를 들 수 있다. 前者는 대학의 卒業論文이었는데 朝鮮初期의 兵制에 대해, 後者는 燕巖 朴趾源의 思想을 살핀 것이다. 後者의 글이 실렸던 『春秋』는 月刊잡지였던 것이므로 그의 글은 論文이라기보다 敎養物로 씌어진 것이었다. 모두 朝鮮時代를 다룬 것이었다.

解放 이후에는 1947년 金日成綜合大學에서 刊行한 『조선역사논문집』에 「李朝初期兵種論」을,²²⁾ 49년 同大學 科學學術研究論叢 第1(歷史·文學研究論文集)에, 「甲午經國大典禮典殘本一冊에 對하여」를 발표하였다. 이어 그 해, 즉 1948년에 北韓政權에서 歷史編纂委員會를 설치하자 常任委員이 되어 委員會의 운영을 맡음과 동시에 委員會에서 刊行하던 잡지 『歷史諸問題』에 6편의 論文을 게재하였다 1輯(1948)에는 「北學論의 發生과 그 歷史的 意義」라 하여, 內容은 解放前 『春秋』에 실렸던 것과 通하는 글로 朝鮮時代를 다룬 것이었다. 그러나 3輯(1948)에 게재한 「契丹(遼)의 侵入과 그 擊退」와 그 밖의 4편의 논문은 모두 고려시대를 다룬 것이었다. 異民族의 侵入에 대한 高麗人의 對抗과 武人政權時代 農民暴動에 대해 쓴 것이었

20) 美國 國立古文書館에 保存되어 있는 「鹵獲文書」중 履歷書 참조. 이는 6·25 動亂 때 美軍이 平壤에 進駐하여 壓收한 文書로 金錫亨이 越北한 직후 作成하여 共產黨에 제출한 것이다. 筆者는 이 文書의 복사본을 「하와이」 대학에서 보았다. 이 문서를 열람토록 허락해준 서대숙 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21) 金광진,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회상」(『민족의 은혜로운 어버이품』 2, 통일신보사, 1979. 3. 所收).

22) 『려사과학』 1961년 3호에 실려 있는 「학계소식」.

다.²³⁾ 關心의 分野를 조선시대에서 고려시대로 돌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6·25 動亂 뒤인 1952년 10월 科學院이 설립되고, 그 산하에 歷史研究所가 세워지면서 研究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는 지난날에 연구한 바를 종합하여 53년에 單行本으로 『李朝兵制史』를 刊行하였고, 54년에는 科學院學報에, 「李朝初期의 軍隊」를 발표하였다.²⁴⁾ 歷史研究所에서 55년부터 『력사과학』이란 잡지를 刊行하게 됨에 그는 多數의 論文을 投稿하였다. 精力的으로 일을 하였던 것이므로 거의 每號에 論文을 게재하였다.

그의 研究활동은 몇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50년 後半期에는 주로 한국 古代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社會身分에 關心을 가졌었다. 이를테면, 『력사과학』 1956년 호에 실린 「朝鮮의 奴婢—主로 農民奴婢에 대하여」, 또 59년 4호에 실린 「三國의 階級 諸關係—三國의 社會·經濟構成의 解明을 위하여」, 60년 1호에 실린 「三國에 先行한 國家들의 種族들에 대하여」, 60년 4월에 刊行된 『歷史論文集』 3集에 실린 「兩班論」, 그리고 單行本으로 57년 12월에 刊行한 「朝鮮封建時代 農民의 階級構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兩班과 같은 支配層뿐만 아니라 奴婢와 같은 被支配層에 대해서도 두루 살피고 있다 할 것이다. 그의 兩班論은 한국 傳統社會에 있어서 高級官吏들 뿐만 아니라, 地主, 寺院, 儒敎의 祠院, 商人까지도 包含시키고 있다. 農奴에 대한 搾取者, 혹은 寄生者라는 의미에서 兩班의 범위 속에 넣고 있다. 「兩班論」과 「朝鮮封建時代 農民의 階級構成」은 歷史研究所 博士院에 제출하여 이것으로 그는 歷史學博士를 取得하였다.²⁵⁾ 그 밖에 1960년 2호에 討論이란 이름

23) 나머지 4편의 논문 제목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 「十二世紀의 高麗」(『高麗農民暴動史』第1篇), 6輯(1949) 所收.
- 「十二世紀末葉의 農民暴動」(『高麗農民暴動史』第2篇), 7輯(1949) 所收.
- 「崔忠獻政權 掌握 後의 農民暴動」(『高麗農民暴動史』第3篇), 8輯(1949) 所收.
- 「蒙古侵略에 대한 人民의 抗爭」(『高麗農民暴動史』第4篇), 14輯(1949) 所收.

24) 『력사과학』 1961년 3호에 실려 있는 「학계소식」.

25) 同上.

으로 「우리나라의 奴隸所有者社會의 特質과 封建社會의 成立」, 그리고 60년 3호에 「조선古代史研究에서 提起되는 몇 가지 理論上問題」라는 글도 발표하였다. 1960년 3월에는 『封建支配階級을 反對한 農民들의 鬭爭』이란 著書를 刊行하였다. 이 책의 內容은 主로 고려시대 農民暴動을 다룬 것이다. 아마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6·25 動亂前 『歷史諸問題』에 게재하였던 고려시대의 農民暴動에 관한 4편의 論文을 修正하여 單行本으로 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60년에 들어서자 그는 古代 韓日關係에 關心을 돌렸다. 그리하여 日本 歷史學界에도 큰 충격을 주었던 劃期的인 論文들을 多數 발표하였다. 그 첫번째 것이 『력사과학』 63년 1호에 실린 「三韓三國의 日本列島內 分國에 대하여」였다. 論文의 要點은 紀元前에서부터 많은 韓國人들이 日本列島에 移住하여 各地에 分國을 設치하였고, 그것은 三國時代에도 계속되었으며 分國은 本國에 對해 植民地的 隸屬關係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5세기 이후 日本社會에 古代國家가 形成되기 시작하여 7세기 前半에 完成을 보았고, 그 古代國家의 支配勢力은 韓國系였다는 것이었다. 日本의 植民地가 韓國 南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韓國의 植民地 즉, 分國이 日本各處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어 『력사과학』 1965년 2호에 「야마대국(邪馬臺國)의 위치와 그의 三韓·三國과의 關係에 대하여」, 同年 3호에 「日本 《天孫降臨》神話를 통해서 본 加羅 사람들의 日本列島에로 進出」, 66년 2호에 「日本 후나야마(船上)古墳에서 나온 칼의 銘文에 대하여」라는 論文을 발표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韓日關係를 정리하여 66년 5월 『初期朝·日關係研究』라는 이름의 單行本을 科學院 出版社에서 刊行하였다. 392면이나 되는 부피가 큰 책이었다. 기원전 3세기 頃부터 기원후 7세기 중엽까지의 約 1,000년간에 걸친 韓日關係史를 다룬 것이었다. 從來의 그릇된 學說을 批判하면서 새롭게 體系化하였고, 緒論, 前編, 後編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 특히 後編에서는 日本 文獻을 살살이 살펴 日本人이 往往 주장하는 「任

那日本府說이 虛構임을 論駁하였다. 이 책은 解放이후 北韓에서 이룩한 學的 業績 중에 가장 比重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金錫亨은 以上과 같은 論文과 著書를 쓰는 한편 歷史研究所에서 主管하여 편찬한 『朝鮮通史』와 『朝鮮文化史』에도 많은 分量의 原稿를 썼다. 1962년 改正版 『朝鮮通史』만 보더라도 古代에서 朝鮮時代에 걸쳐 6章(2, 3, 11, 12, 13, 14章)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련 科學院에서 『全世界史』를 편찬하여 刊行하자 즉각적으로 金熙一, 孫永鐘과 함께 「소連아카데미 編『世界史』의 朝鮮關係 敘述의 重大誤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소련 學界가 既往에 日本人이 研究한 것에 依存하여 한국사를 敘述하였다고 비난을 퍼부었다.²⁶⁾

그는 또한 北韓을 代表하여 外國에서 開催된 國際會議에 여러 번 참석하였다. 1956년에는 「루마니아」(Rumania)를 訪問하였고,²⁷⁾ 60년 8월 소련의 首都「모스크」에서 열린 25次 동양학자대회(Congress of Orientalists)의 단장으로 참가했다. 北韓에서는 이 회의를 국제 동방학자 대회라고 부르고 있다. 北韓에서 참가한 학자 6명이 이 때 발표를 하였는데, 金錫亨은 「三國時期的 文化」를, 朴時亨은 「조선에서의 金屬活字의 發明과 그 후 發展」을, 考古學者 都有浩는 「朝鮮의 金屬器文化」를, 國語學者 洪起文은 「현대조선어의 形態론적 특징」을 발표하였다.²⁸⁾

63년 10월 北韓 歷史學者 및 考古學者의 代表團長으로 中共을, 69년 10월 社會科學院 代表團長으로 소련을 訪問하였다.²⁹⁾ 그리고 日本 奈良縣 「다카마쓰」(高松)塚 古墳壁畫의 共同學術調査를 위한 南北韓 學者 및 日本學者의 모임이 1972년 10월 東京에서 열렸을 때 金錫亨은 社會科學院 代表團長으로 朱榮憲(科學院 考古學研究所 副所長) 등 3명을 거느리

26) 同上書 1963년 5호. 이것은 1963년 9월 平壤의 外國文出版社에서 單行本으로 刊行되고 日本語로도 번역되었다.

27) 同上書 1957년 1호에 실려 있는 「학계소식」.

28) 同上書 1960년 6호에 실려 있는 「학계소식」.

29) 『韓國·北朝鮮人名辭典』(世界政經調査會, 東京, 1973).

고 참가하여 발표를 하였다.³⁰⁾

그런데 그는 歷史研究所의 所長의 자리 때문인지, 혹은 그의 社會成分 때문인지는 몰라도 北韓政權에서 제시한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글을 『력사과학』 등에 많이 실고 있다. 그의 社會成分이란 부유한 家庭에서 成長하고 父母가 철저한 기독교 信者였다는 것, 또 父親이 美軍政時代 慶尙北道 知事를 지냈다는 등 共產政權에서 批判을 받아 마땅한 身分을 가졌던 것을 말한다.

北韓政權에서 제시한 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글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째로 『력사과학』 1957년 3호에 실린 「조선력사 연구의 기초 축성을 위하여」를 들 수 있다. 이 글의 맨 앞에서,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와 이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서에는 우리나라 과학 연구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총체적 로선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과학 기관들과 또 개별적인 과학자들은 일치하게 이 문헌들의 정신을 지침으로 하여 자기들의 과학 사업을 재검토하고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下略)

고 하여, 로동당 3차 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의 보고와 이 大會에서 채택한 決定書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었다.

둘째로 『력사과학』 58년 1호에 실린 「위대한 강력적 문헌들을 깊이 연구하자」라는 글이 있다. 이것은 그 동안 朴憲永을 中心으로 하는 南勞黨, 또 崔昌益을 中心으로 하는 中國 延安出身 朝鮮獨立同盟 등 종파分子들이 남긴 著書와 論文들을 朝鮮勞動黨 文獻들의 정신에 立脚하여 하나하나 檢討하여 그안에 들어 있는 종파分子들의 害毒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세째로 『력사과학』 1958년 4호에 실린 「우리黨의 科學政策的 올바른과 歷史學界의 任務—共和國 創建 10週年에 즈음하여」와 1962년 2호에 실린 「해방 후 조선력사학의 발전」이란 글이 있다. 內容은 비슷하다. 後者

30) 同上書와 『新東亞』 1972년 12월호 「뉴스와 話題」.

의 글을 中心으로 설명한다면, 解放以後 歷史學界는 종파分子들의 著書나 理論에 휩쓸리기도 하였으나, 올바른 歷史家들은 金日成의 지시를 잘 따랐기 때문에 역사학이 발달하였다는 것이었다. 선전문과 같은 글 중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늘 우리 학계는 김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따라 그이가 놓아주신 초석 위에서 우리 학계는 오늘 우리당 리론 전선의 일익을 담당하는 붉은 력사가들의 집단으로서 오늘 우리 력사 학계는 우리 땅이 주는 과업을 다른 부문에 못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와 준비된 간부들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력사가들은 그 어떤 과업이든지 당과 김일성 동지가 주는 것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해내고야 말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下略)

고 하였다. 얼마만큼 金日成을 추켜올리고 있고 追從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력사과학』 1966년 6호에 실린 「력사연구에서 당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을 관철한 데 대하여」라는 글도 內容은 앞서 것과 大同小異하다.

1960년대 後半期부터 北韓政權이 主體思想의 強調, 金日成·金正日 承繼의 合理化를 主唱하게 되면서, 歷史家들의 研究意慾은 꺾이고 成果는 自然히 不振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金錫亨 역시 別로 研究할 처지에 있지 못하였다. 70年代에 전혀 論文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음은 그 端的인 例에 속한다. 80年代에 들어서 겨우 3편의 논문을 『력사과학』에 게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84년 1월호에 「고구려시조 동명왕 주몽의 출생설화에 대하여」, 85년 3호에 「527년 북규슈호족 이와이의 《반란》 사건」, 88년 2호에 「《삼국사기》를 통하여 본 4세기말 5세기초의 조일관계에 대하여」란 論文이 그것이다. 특히 뒤의 2編의 論文은 60년대에 깊이 研究한 古代 韓日關係史의 副産物로 씌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지 눈에 띄는 현상은 1970년 後半期부터 金錫亨이 北韓政權, 혹은 金日成을 적극 지지하는 글을 많이 발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력사과학』 78년 3호에 「론문」이라고 한 다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의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립을 위해 투쟁」, 80년 4호에 실린 「주체의 빛받아래 개화발전한 우리나라 력사과학」등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더우기 『수령님의 품속에서』(人民出版社, 1981)라는 책에 들어 있는 그의 글, 즉 「주체적인 역사관을 세워주시기 위하여」는 金日成이 역사가들에게 主體적인 歷史觀을 세워주기 위하여 過去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쓴 것이다. 이와 같은 글을 통해 보면, 金錫亨은 北韓政權, 혹은 金日成의 앞잡이로 완전히 轉落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1950~1960년대에 거두었던 研究成果와는 完全히 因緣을 끊고 있다 할 것이다.

2. 朴時亨

朴時亨의 兒名은 永錫, 1910년 1월 16일 慶尙北道 聞慶郡 聞慶面 下里에서 出生하였다. 父親 朴東烈은 自作農으로 聞慶面長을 지냈다. 朴時亨은 1922년 4월 聞慶公立普通學校 4년을 修了하고 京城第二公立高等普通學校(오늘의 景福高等學校)에 入學, 27년 3월 위 學校를 졸업하였다. 이어 國民學校 敎員이 되어 1929년 5월에서 30년 3월까지 江原道 金剛山에 있는 私立 釋王寺普通學校에서, 그 해 9월에서 35년 12월까지의 故鄉의 公立普通學校에서 敎鞭을 잡았다. 이처럼 10년간의 國民學校 敎員生活를 하다가 이를 청산하고 36년 4월 서울의 延禧專門學校(延世大學校의 前身) 文科에 入學하였다. 그러나 이 學校에서의 敎授科目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다음해, 즉 37년 4월 京城帝國大學 史學科 選科로 옮겨 40년 3월 卒業하였다.³¹⁾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金錫亨도 40년 3월에 졸업하였던 것이므로 그와 同期生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金錫亨은 本科를, 朴時亨은 選科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兩者간에는 엄연한 差異가 있었다.

41년 4월 서울의 徹新學校 敎員으로 就職하였다. 그러나 45년 3월 咸

31) 『慶尙北道 聞慶郡 聞慶面 下里 77番地 戶籍謄本』, 『景福高等學校 學籍簿 및 生活記錄簿』, 『延禧專門學校 學籍簿』(除籍簿 第7卷 所收) 참조.

鏡南道 高原警察署에 被檢된으로서 위 學校로부터 罷免을 당하였는데, 被檢된 理由는 金錫亨과 같이 朝鮮語學會事件에 관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해 6월 咸興刑務所로 收監되었다가 8월에 解放과 더불어 釋放되었다.

다음 해 46년 3월 京城經濟專門學校(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前身) 教授로 就任하였으나 5개월 뒤, 즉 8월 朝鮮共產黨의 命令으로 越北, 金日成 綜合大學으로 教授職을 옮겼다. 그 역시 45년 10월 革命家였던 徐重錫을 保證人으로 하여 共產黨에 加入한 바 있었다.³²⁾ 앞에서 言及한 바 있듯이 46년 7월 平壤에서 越南하여 서울에 있는 학자들과 접촉하였던 金洗鎭의 실득으로 그도 越北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朴時亨이 日帝時代에 쓴 論文으로 우선 『震檀學報』 14號(1941년 6월 刊)에 실린 「李朝田稅制度的 成立過程」을 들 수 있다. 이것은 大學의 卒業論文으로 世宗時代에 실시된 貢法에 대해 쓴 것이었다. 그리고 『春秋』라는 月刊 잡지 1호(1941년 2월 刊)에 「朝鮮史上 唯一의 大運河計劃」, 3호(1941년 4월 刊)에 「조선의 農家者流」, 12호(1942년 1월 刊)에 「朝鮮馬政史略」을 발표하였다. 첫째 것은 朝鮮初期 慶尙, 全羅, 忠淸 各道の 租稅를 서울로 운반하는, 이른바 漕運을 円滑하기 위해 조선 政府에서 瑞山의 安興梁과 泰安의 掘浦에 運河를 개착(開鑿)하려던 계획을 살핀 것이고, 둘째 것은 조선시대 農政관계의 책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니까 鄭招가 편찬한 『農事直說』에서부터 丁若鏞이 쓴 『經世遺表』와 『牧民心書』까지를 概觀한 것이다. 세번째 것은 筆者가 찾지 못하여 읽어 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무엇이라 말하기 힘들나 말의 사육 등의 문제에 대한 나라의 行政을 살핀 것이라고 생각된다.

解放 뒤로부터 越北하기 전까지, 즉 1945년 8월에서 1946년 7월까지 그는 2편의 論文을 발표하였던 것 같다. 梁柱東 編 『民族文化讀本』 下卷(靑年社, 1946)에 들어 있는 「事大主義論」과 朝鮮科學者同盟 編 『李朝社會

32) 註 21)과 같음.

『樂濟史』(勞農社, 1946)에 들어 있는 「箕田論始末」이 그것이다. 前者는 事大主義라는 것이 對外的인 面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對內的으로 權力層이 自己支配의 正當化를 꾀하기 위해, 혹은 國內의 政治的 對立을 解消하기 위해 發生한다는 內容을 쓴 것이다. 後者는 元來 京城帝國大學 史學科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발표한 것이었다.³³⁾ 그 內容은 箕子의 井田法이란 실제로 存在한 것이 아니고 조선의 학자들이 당시의 土地制度의 矛盾을 打開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라 하였다.

이어 그는 越北하여 金日成綜合大學의 教授가 되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49년 同大學 科學學術研究論叢 第1(歷史·文學研究論文集)에, 「李朝初期의 田制——經國大典 田制諸條의 研究」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해, 즉 1949년 朝鮮歷史編纂委員會가 설치되자 그 常任委員이 되어 활약하였다. 編纂委員會에서 刊行하던 잡지 『歷史諸問題』에는 2輯(1948년 刊)에, 「李朝初期의 田制——經國大典諸條의 研究」를 발표하였다. 이 論文은 앞에서 지적한 金日成綜合大學 科學學術論叢에 실렸던 것과 제목이 같은 것으로 보아 兩側에 같은 論文을 제출하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이것은 대학의 卒業論文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5輯(1949년 刊)의 「外國史潮」에 소련의 학자 「느·야코브레스」가 쓴 「歷史教授에 關한 基本方向——祖國《포런》史教授에 關하여」라는 論文을 우리 말로 번역하여 실고 있다. 그는 이미 러시아語를 익히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문을 번역하였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그는 1949년 11월 金日成綜合大學에서 刊行한 『朝鮮民族解放開爭史』에 「歐米資本主義侵入과 國內動向」이란 제목으로 大院君의 對內外政策을 쓰고 있다. 전공하는 分野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別로 새로운 內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52년 10월 北韓에 科學院이 설립되었다. 金錫亨과 더불어 朴時亨은

33) 『學叢』1輯(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1942)에 소개되어 있는 第1回 研究發表會를 보면, 朴時亨은 「箕田說顛末」을 발표하였다고 있다.

北韓의 代表的인 歷史學者였으므로 院士로 추대되었다. 1905년생으로 나이도 많고 오스트리아 원 大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考古學者 都宥浩는 候補院士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³⁴⁾ 北韓政權에서 金錫亨과 朴時亨에 대한 대우는 유별났었다고 할 수 있다. 科學院 산하에 歷史研究所가 설치되자 朴時亨은 그 初代所長에 任命되었다.³⁵⁾ 金錫亨보다 學閥은 뒤진다고 해도 5年이나 나이가 위였기 때문에 任命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55년 1월부터 歷史研究所에서 『력사과학』을 刊行하자 그는 많은 論文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력사과학』 1956년 4호 卷頭言에, 「朝鮮勞動黨 3次大會와 朝鮮史研究의 課題」라 하여, 北韓政權을 적극 지지하는 글을 실고 있다. 그러나 金錫亨에 비해 그는 이런 종류의 글을 많이 쓰지 않고 있다. 出身成分이 좋아 北韓政權으로부터 항상 信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력사과학』에 발표한 論文을 보아 그의 研究도 몇 時期로 區分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시기는 1950년대로서 土地制度를 연구한 시기였다. 사실 40년대 대학에서 졸업논문을 쓸 때부터 그는 土地制度에 관심이 컸다. 『력사과학』에서도 1955년 2호에 실린 「朝鮮에 있어서의 封建的 土地所有에 대해」, 57년 6호에 실린 「신라장적(帳籍)의 연구」는 모두 土地制度에 대한 研究 論文이었다. 前者는 관계 학자들의 討論에 붙이기 위해 쓴 것이었다.

이와 같은 研究의 結果로 그는 한국의 土地制度에 대해 單行本을 써서 刊行하였다. 1960년에 『朝鮮土地制度史』 上卷을, 61년에 下卷을 世上에 내놓았다. 上卷 335면, 下卷 404면 都合 740면에 달하는 大著였다. 內容은 三國時代로부터 19세기까지 2,000년 가까운 時期의, 所謂 한국 封

34) 『력사과학』에 실려 있는 도유호의 論文을 보면, 그의 職位를 언제나 「후보 원사」라고 쓰고 있다.

35) 『北韓全書』(極東問題研究所, 서울, 1974) 下卷 참조.

建時代의 土地制度를 다룬 것이었다. 租稅制度, 身分制度, 政治社會狀態까지 視野를 擴大하여 土地制度를 살피고 있으나 실제 農業의 經營形態나 家族構成에 대한 分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傳統社會의 복잡한 土地制度를 體系化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것으로 歷史學博士 學位를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³⁶⁾

1950 년대에 쓴 것으로 『력사과학』 1959 년 5 호에 실린 「朝鮮에서 金屬活字의 發明과 그 使用」이란 論文이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0 년 8 월 「모스크」에서 열린 25 차 동양학자 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論文이었다.

1960 년대에 들어서자 朴時亨은 한국古代史에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력사과학』 1962 년 1 호에 「渤海史研究를 위하여」, 63 년 3 호에 「만조선(滿朝鮮)왕조에 관하여」, 64 년 5 호에 「廣開土王碑」를 발표하였다.

첫째 論文은 먼저 渤海와 관계되는 韓·中·日 文獻과 18 세기 우리나라 實學者들의 研究를 살핀 것이다. 그리고 渤海國이란 고구려인들이 세웠고, 그 領土는 옛 고구려의 大部分의 땅을 차지하여 230 餘年間 유지되었던 나라이므로 우리나라 歷史에 正當한 位置를 占하도록 해야된다고 하였다.³⁷⁾ 둘째 論文은 우선 箕子東來說을 批判하여 그것은 애매모호한 이야기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衛滿朝鮮을 批判하여 이 나라는 韓國人이 세운 나라였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論文은 講座라는 이름으로 日本學者들의 碑文에 대한 왜곡 해석을 不當한 처사라고 쓰고 있다.

특히 63 년 中國學者들과 같이 共同으로 滿洲 輯安(近者에는 集安이라고 쓴다.)에 있는 廣開土王陵碑를 살폈다. 北韓側에서 참가한 學者는 朴

36) 그것은 1962 년 改正版 『朝鮮通史』에, 6·7 章의 執筆者是 「院士·歷史學博士 朴時亨」이라고 써여져 있음을 보아 그렇게 추측해 보았다.

37) 그는 뒤에 『渤海史』라는 이름의 單行本을 金日成綜合大學에서 刊行하였다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으나, (『東아시아의 古代文化』 27 호 <東아시아古代文化編輯部, 1981 년 봄 刊行>에 들어 있는 井上秀雄과 朴時亨의 座談會「日鮮古代史의 諸問題」참조) 筆者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하였다.

時亨, 金錫亨, 蔡熙國, 朱榮憲 등 歷史學, 考古學, 民俗學 研究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朴時亨은 이 때의 조사와 그 뒤의 研究로서 66년 4월 320면에 달하는 單行本을 刊行하였다. 冊名은 論文 제목가 마찬가지였다.

이 책에는 本文 4장과 附錄이 들어 있다. 1장에서는 碑의 建立과 관계되는 古文獻을 살폈고, 2장에서는 19세기 후반의 碑 發見時期와 그 經過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3장에서는 廣開土王 統治 前後 時期의 東北亞細亞情勢를 밝혔고, 4장에서는 碑文에 대해 段落을 나누어 번역하고, 歷史事實까지 붙여 해설하고 있다.

過去 日本學者들이 碑文 중에 나오는 句節을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 破百殘△△△羅 以爲臣民」이라고 읽었는데, 그는 이를 不當하다고 論하고, 碑文의 主格이 高句麗 혹은 廣開土王이므로 다음과 같이 읽어야 된다고 하였으니, 즉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 百殘^[倭]_{△△△}羅 以爲臣民」이라 하였다. 즉 辛卯年(A.D. 391, 廣開土王即位年)에 倭가 바다를 건너 百殘(百濟), 新羅를 擊破하여 臣民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倭가 辛卯年에 來侵하였으므로 우리 高句麗가 바다를 건너 그들을 擊破하였고, 百濟가 (倭人을 끌어 들여) 新羅를 侵略하여 그들을 自己의 臣民으로 삼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鄭寅普先生이 일찌기 試圖했던 判讀과 같은 것이어서,³⁸⁾ 偶然의 一致인지, 혹은 어떤 영향하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흥미있는 문제이다.

『력사과학』 62년 4호에, 隨筆이란 이름 아래 「력사적 사실과 문헌」, 65년 5호에, 講座라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의 金石學」에 대해 글을 쓰고 있

38) 鄭寅普,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釋略」, 『庸齋 白樂濬博士 還甲記念 國學論叢』(思想界社, 1955)所收. 그런데 鄭寅普의 글이 作成된 것은 1938년에서 40년頃이었다 한다. 이에 대해서는 李基東의 廣開土王陵碑에 대한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韓國史市民講座』 3집, 一潮閣, 1988년 刊) 참조.

39) 『現代朝鮮人名辭典』(世界社나르社, 東京, 1962).

다. 물론 모두다 古代史와 관계되는 文獻, 혹은 金石文의 重要性을 설명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 論文과 著書를 쓰는 한편 朴時亨은 歷史研究所에서 편찬한 『朝鮮通史』 등에 自己가 전공하는 分野를 맡아 原稿를 썼다. 1962년 改正版 『朝鮮通史』만 보더라도 高麗末, 朝鮮初期에 해당되는 6, 7章을 맡아 썼다.

그 역시 北韓을 代表하여 外國에 나아가 국제會議에 참석하였다. 55년 10월 소련 「모스크」에서 開催되었던 「第1次 러시아革命 50週年 記念 學術報告會」에 科學院 代表로 參席하였고,³⁹⁾ 57년 11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Praha)에서 개최된 「共產黨과 勞動者 歷史委員會 及 研究所會議」에 北韓代表로,⁴⁰⁾ 58년에도 소련과 「불가리아」를 旅行하였다.⁴¹⁾ 그리고 80년 11월 北韓의 科學文化代表團 團長으로 日本을 訪問하여 古代史를 中心으로 北韓에서의 研究成果를 발표하였다.⁴²⁾

1960년대 後半期부터 北韓政權 內部에서 思想鬭爭이 일어나 『력사과학』 잡지도 제대로 刊行되지 못하고, 歷史學者들의 研究意慾도 喪失하게 되었다. 朴時亨도 의욕을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단지 『朝鮮全史』에 渤海史를 정리하여 게재할 정도였고,⁴³⁾ 『력사과학』 81년 4호에 「우리나라 실학유산에 대한 연구——실학자들의 군사개혁론을 중심으로」라는 論文을 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위의 論文은 分量도 적고 內容도 새로운 것이 들어 있지 않다.

IV. 結 語

以上으로 金錫亨과 朴時亨의 研究活動을 中心으로 北韓의 歷史學을 概

40) 同上書

41) 『력사과학』 1958년호에 실려 있는 「學界消息」.

42) 『력사과학』 1976년 4호와 前記 『東아시아의 古代文化』 27호에 게재된 「朝鮮史研究에서 達成된 成果」 참조.

43) 註 36)과 같음.

觀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內容을 要約하여 結論에 代身할까 한다.

1. 1948년 北韓政權에서 朝鮮歷史編纂委員會를 조직하여 29명의 委員을 選任하였다. 이 委員會에서 [계획했던 通史와 朝鮮最近世史의 刊行은 뜻대로 안되었으나 『歷史諸問題』라는 잡지는 1948년 7월에서 1950년 6월 한국動亂이 일어날 때까지 18輯을 刊行하였다.

2. 金錫亨과 朴時亨은 1946년 여름 共產黨의 命令으로 越北하여 金日成綜合大學의 教授가 되었고, 朝鮮歷史編纂委員會의 常任委員이 되어 그 會의 운영을 맡았다.

3. 1952년 10월 科學院이 설치되었고 64년 2월 社會科學院으로 改稱되었다. 이 기관에 歷史研究所가 附設되어 55년 1월부터 『 역사과학』이라는 잡지를 刊行하였다. 이 잡지는 67년 末까지 順調롭게 刊行되었으나 68년 初부터 北韓政權內의 思想鬭爭 때문에 77년까지 10년간 거의 中斷狀態에 빠졌다. 그 뒤 78년부터 속간되었다. 그렇지만 內容은 이전 것과 는 전혀 달라 宣傳冊子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4. 金錫亨은 『 역사과학』에 많은 論文을 발표하는 한편으로 여러 卷의 單行本도 刊行하였다. 그 代表的인 것이 『朝鮮封建時代의 階級構成』과 『初期朝・日關係研究』였다. 특히 後者は 오늘날까지 日本學界에 큰 影響을 주고 있다. 그는 또한 北韓學界를 代表하여 여러 차례 국제學術회의에도 참석하였다.

5. 朴時亨도 『 역사과학』에 여러 篇의 論文을 발표하는 한편 『朝鮮土地制度史』와 『廣開土王陵碑』라는 單行本을 刊行하였다. 그 역시 北韓學界를 代表하여 여러 차례 국제 學術에 참석하였다.

6. 金錫亨의 出身成分이 北韓政權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比較的 裕福한 家庭에 태어난데다가 父母 두 분이 모두 철저한 기독교信者였다는 것이 作用하지 않고 있다 생각된다. 이 때문에 그는 항상 北韓政權을 적극 支持하고 金日成을 찬양하는 글을 써야만 되는 것 같다. 이에 反하여 朴時亨은 自作農 出身으로 父親의 社會的 地位도 別로 높지 않았

다. 이 때문에 그는 北韓政權으로부터 信賴를 받고 있고, 金錫亨보다 行動이 훨씬 自由스러운 것 같다.

7. 1968 년 이후 北韓政權 內에서 벌어진 思想鬭爭으로 金錫亨·朴時亨 두 사람 모두 學問的 活動을 別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別로 研究成果도 없다.